

제주목 관아 현장학습 교재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는 무슨 일을 했던 곳일까요?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Jeju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 주 목 관 아



제주목 관아는 무슨 일을 했던 곳일까요?



제주목 관아

‘목’이란 조선시대(1392~1910)의 행정단위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행정 단위가 시, 군, 읍, 면, 동, 리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조선시대에는 부, 목, 군, 현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세 지역으로 나누어 다스려졌습니다.



제주목 관아는 제주도 전체의 행정을 맡아보던 관청이었으며, 제주목사는 제주목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 곳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세금을 거두고, 군대에서 쓰일 말을 관리하고,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주목사는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되는 직책이지만 동시에 군대의 사령관이자 재관관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목 관아는 무슨 일을 했던 곳일까요?



탐라순력도



〈탐라순력도〉는 이형상 선생께서, 제주목사로 근무할 당시인 숙종28년에서 29년(1702~1703)에 제주도의 각 마을을 살피러 다니면서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기록한 그림책으로 이 그림속에는 제주목 관아의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속 장면은 관덕정 마당에서 지금은 도로로 변해버린 중앙로 쪽으로 활을 쏘는 장면입니다.

문제풀이

❶ 제주목 관아는 지금의 어떤 기관에 해당할까요?

- ① 제주도청 ② 제주대학교 ③ 소방서 ④ 경찰서

❷ 조선시대에 제주목을 다스렸던 최고 벼슬로 세금을 거두고, 죄인에게 벌을 주고, 왜구의 침입을 막는 일을 했던 관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❸ 우리 고장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❹ 다음의 설명문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글을 적어 보세요

〈탐라순력도〉는 이형상 선생께서 제주목사로 근무할 당시인 숙종 28년에서 29년(1702~1703)에 를 돌아다니며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자세히 기록한 입니다.

자! 그럼 제주목 관아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관덕정은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된 제주도의 대표적인 정자¹⁾입니다. 관덕정 대들보²⁾에는 누가 그렸는지 알려지지 않은 7폭의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보물(제322호)로 지정된 우리 고장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
- 1) 정자 : 경치를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집을 말합니다.
 - 2) 대들보 : 지붕의 무게를 떠받치는 수평으로 된 지지들보를 말합니다.

외대문은 관아의 관문인 2층 누각³⁾ 건물로 종루⁴⁾로도 활용되었습니다. 2층에서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쳐 성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관아 정문에 세워진 비석에는 제주목사 외에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게 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관아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⁵⁾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소란을 떨거나 방자한 행동을 삼가게 했습니다.



-
- 3) 누각 :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게 지은 집을 말합니다.
- 4) 종루 : 종을 매다는 누각 건물입니다.
- 5) 전패 : 임금을 상징하는 ‘전(殿)’ 자를 새겨 각 고을의 객사에 세운 나무패로 관리나 고을 원이 절을 하고 예를 표시하였습니다.



제주목 관아는 무슨 일을 했던 곳일까요?



우연당은 연회장소로 사용된 정자입니다. 정자 앞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인공적인 못을 파고 물을 가득어 연꽃을 심었습니다. 나중에는 임금님께 진상품을 바치는 곳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홍화각은 제주목사가 군대의 사무를 보던 곳입니다. 제주목 관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 가장 화려했었다고 알려집니다.



연희각은 제주목사가 행정의 사무를 보던 곳입니다. 상아동헌⁶⁾으로도 불렸습니다.



망경루는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곳이었지만, 때로는 해안선을 바라보며 외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초소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6) 상아동헌 : 판관이 근무하던 동헌보다 격이 높으므로 윗 상(上)자를 써서 상아동헌이라고 합니다.



제주목 관아는 무슨 일을 했던 곳일까요?



굴림당은 제주목사가 바둑을 두거나 시를 짓는 장소로 이용하였답니다.



영주협당은 군인들이 군대의 사무를 보던 곳입니다.



회랑은 외대문의 좌, 우에 늘어선 긴 집채로 조선시대에는 관아에 근무했던 관리, 군졸, 장인들이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제주목의 생활상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에 부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관리들을 잊지 않기 위해 제주 사람들이 고마움을 새겨 놓은 비석들을 한 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영주협당안에 전시된 아래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위의 그림은 예고를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예고⁷⁾는 조정에 진상할 전복·해삼·표고버섯·미역 등 각종 물품을 보관하던 장소입니다.

7) 예고 : 각종 제사에 충당할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문제풀이



- ⑤ 아래의 그림은 관덕정 안에서 볼 수 있는 현판입니다. 현판의 글씨를 읽어볼까요?
- ⑥ 제주목사가 군대의 업무를 보던 곳으로 제주목 관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건물은?
 ① 관덕정 ② 홍화각 ③ 우연당 ④ 굴림당
- ⑦ 관아의 관문인 2층누각 건물로 종루로도 활용된 건물은?
 ① 관덕정 ② 홍화각 ③ 망경루 ④ 외대문
- ⑧ 연회장소로 사용된 정자로 앞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뜻이 있는 건물은?
 ① 굴림당 ② 연희각 ③ 우연당 ④ 외대문
- ⑨ 하마비는 관아 이외의 장소에도 세워집니다. 과연 그 곳은 어디이었을까요?
- ⑩ 조선시대 제주목에서는 조정에 각종 물품을 진상했습니다. 진상물의 옛 이름과 요즘의 이름을 연결해 봅시다.
- | | |
|-------|-----------------|
| • 어승마 | • 두드려 말린 전복 |
| • 동정굴 | • 임금이 타는 말 |
| • 비 자 | • 다섯가지 맛이 나는 열매 |
| • 추 북 | • 감귤의 한 종류 |
| • 오미자 | • 비자나무의 열매 |



1) ①, 2) 제주목사, 3) 관덕정, 제주목 관아, 삼성혈 등
4) 제주도, 그림책, 5) 호남제일정, 6) ②, 7) ④, 8) ③, 9) 향교
10) 어승마-임금이 타는 말 / 동정굴-감굴의 한종류 / 비자-비자나무의 열매
추복-두드려 말린 전복 / 오미자-다섯 가지 맛이 나는 열매

찾아오시는 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관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25
T.(064)-710-6717 F.(064)-710-6719